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연말 연시 행사들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표어로 삼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한 1998년도도 이제 한달 남짓 남았다. 아름다운 마무리와 알찬 계획으로 다가오는 날들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

각종 연말연시 행사로 분주하기 쉬운 12월엔 교회에서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 오는 해를 알차게 맞이하기 위한 일들로 바빠진다. 내년에 수고할 각 부서 일꾼 임명, 각 교회학교와 전도회 등의 총회 및 사업계획을 위한 회의 및 기도회, 시상식 및 수료식 등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오늘날부터는 교회력(敎會曆)상 대강절이 시작된다. 성탄절을 앞둔 네 주 동안의 대강절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이를 축하할 뿐만 아니라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이를 준비하면서 성탄정신을 구현하는

기간으로 지내게 된다. 또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성탄절예배와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12월 20일(주일)에는 할렐루야찬양대가 주관하여 성탄축하찬양예배를 드리게 되며 24일(목)에는 교회학교에서 마련한 성탄절 행사가, 25일(금)에는 성탄절 예배가 각각 있게 된다.

그밖에 비전2020승전감사예배와 서울성경대학 제 4학기 수료식이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 있게 되며 12월 학습·세례식과 새가족환영회도 각각 거행된다.

1999년 0시에는 송구영신예배를 드린다.

12월 행사 게시판

일자	행사
6일	서리집사·교구일꾼 임명식 남선교회·여전도회 총회 교구총회 비전2020 승전감사예배, 서울성경대학 수료식
13일, 16일	찬양대원 임명식
16일	12월 학습·세례식
20일	교회학교 교사 임명식 성탄축하 찬양예배
24일	성탄전야행사
25일	성탄절 예배
27일	교회학교 졸업식 12월 새가족환영회
31일 ~ 1월 1일	송구영신예배



임직예배

충성을 다짐하며

교회설립 제 7주년 기념감사주일이자 추수감사절이었던 지난 주일 찬양예배 시 장로 임직식이 거행됐다. 임직식에선 왕경래·하영수·노송성·서문석·박두호 등 5명이 임직을 받고 장로에 장립됐다. 새로 임직을 받은 이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할 것을 다짐했으며, 성도들은 존경과 사랑으로 이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함께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99년 순결서약식 1월 3일 거행

13세 이상 미혼 대상, 12월 13일까지 접수

교회는 내년 1월 3일 찬양예배 시 거행될 순결서약식에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의 신청을 13일(주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13세 이상의 미혼자로 앞으로 결혼 전 순결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신청은 사무국에 비치된 신청서를 교부받

아 작성한 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순결서약식에서는 참가자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게 된다.

또한 순결서약자에게는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반지'가 주어진다. 따라서 사전에 반지를 제작할 수 있게끔 신청서

에는 자신에게 맞는 반지의 크기를 기재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되는 안내책자를 참고하거나 교회학교의 담임 교사 혹은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순결서약식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펼치고 있는 '정직·절제·사랑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우리 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가장 먼저 1995년 첫 주에 서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현재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사야 강해

이스라엘의 회복

이사야 14장 1-4절

바벨론은 BC 538년 파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벨론에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바벨론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사 구원 하셨습니다.

1.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더니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다시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비참한 자가 될 뻔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던 것을 다 뒤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은 자들입니다.

2.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긍휼하심을 베풀어 그들을 구원하심은 이방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바벨론을 이스라엘로 인하여 구원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들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불신자들이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부끄럽게 해서도 안됩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가입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은 이방의 빛을 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습

대의 질병 가운데 70%가 정신적인 것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께 이르라고만 했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는 연고로 자꾸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두려움과 모든 곤고

“여호와께서 아람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아람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와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 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확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사 14:1-4)

이종운 목사



니다. 이 사명을 놓치면 구원 받은 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바벨론은 갑자기 망했습니다. 러시아나 동유럽도 하루 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북한도 필경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갑자기 멸하십니다. 성도에게는 예고를 주시지만 사탄은 갑자기 멸하십니다.

3절과 4절은 승리자가 부를 수 있는 개선 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부르던 이 노래를 기억해야 됩니다(시 137:1-3).

고통의 눈물을 흘리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개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황과 환경이 변했고 모든 고역에서 농임을 받았습니다(5절). 하나님께서 악인의 동등이를 격으시면 사탄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시

합에서 우리는 농임을 받고 안식을 받게 되는 날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바벨론에는 몇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학대했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었습니다(17절). 이런 나라를 포악한 정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도 힘을 과시하고 모든 나라의 법을 무시한 바벨론이 어찌 그리 갑자기 망했습니까? 바벨론은 냉혹한 나라로 원수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로 압제 했습니다.

“네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히 이름이 나지 못하리니라”(사 14:20).

그리고 바벨론은 교만하기가 하늘을 찌르는 나라였습니다(13-14절).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동등이를 격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백성이 되어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직을 받고서

“자원하는 마음과 인내로써”



왕경래 장로

교회 설립 7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사람에겐 교회

를 위해 일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도록 이끌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 일 많은 서울교회의 큰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에 지극히 작은 일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종일관 인내로써 책임을 다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지난 6개월 간 피택장로 교육을 통해 배운 대로 행하여 신행일치의 삶으로 본이 되며, 주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의 화평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귀한 직분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제 십자가를 지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며,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상 일에 매이지 말라고...”



하영수 장로

역사 창조와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칠년 전 서울교회를 세우시던 때, 저희 장모님을 불러가셨습니다. 아내와 저는 천리길 먼 시골 상주의 슬픔 가운데에서도 진통의 소

용돌이에 있는 서울교회 생각에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이번엔 설립 7주년을 기념하는 감격의 날 눈이 내리는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를 불러가셨습니다. 그날은 제가 장로로 임직을 받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의미없이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일들을 통해 저에게 분명히 무언가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새끼를 떼어 놓고 법계를 끌고 뽀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어미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되 울면서 갔지만 새끼 없는 어미소였다면 울지도 않고 묵묵히 갔을 것입니다.

미물에 불과한 이 죄인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두렵

고도 떨리는 마음으로 중성하려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하여 제가 세상일에 매이지 말라고 어머니의 낙엽 같이 시든 육신을 불려가신 것입니까? 어머니 한 몸이야 어떠라는 어머니로 인한 많은 자손들까지 이제 조용히 각자의 삶을 살되 번거롭지 말라 주신 말씀입니까? 나는 미련하고 약하오니 지난날 같이 구체적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시 태어난 심정으로”



노승성 장로

추수감사주일과 교회설립 제 7주년을 맞이하는 복된 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과 함께 장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앞으로의 나의 삶이 좀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신앙의 본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구해 봅니다. 교회는 물론 직장 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되심을 선포하며 선택의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된 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심정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져서 주님의 마음에에 합한 일꾼이 되며 겸손과 사랑으로 웃임고 영적 성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뿐입니다.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게 하려”



서문석 장로

장로란 모름지기 훌륭한 인격자로 비난 받을 아무 혐의도 없고 남에게 책망 받을 일이나 비평받을 것이 없는 온전한 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부족하고 우둔하기 짝이 없는 자가 고귀한 직분을 받으려 하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지난 날 제 모습을 돌아보면 어리석은 것 뿐이었고 제가 영생을 얻은 것은 기뻐하였지만 남에게 전하려는 노력에는 게을리 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동료들과 일가친척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그같은 일은 단지

목회자들의 일로만 여겼습니다.

이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임을 고백하면서 귀한 일꾼 삼아주시는 것을 진정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조용히 헌신하겠습니다.

마음은 간절히 원하나 이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더 큰 죄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지극히 낮아져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쓰임받게끔 하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며 선배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의 각오를 다져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지지 않고 견디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박두호 장로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 삼아주시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자세로 늘 배우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제자

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본받아 성도들을 섬기며 협력하는 종의 자세로 즐겁고 기쁘게 봉사하겠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가장 귀한 것을 바쳐 순종과 희생의 봉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결코 부득이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즐겨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선배 장로님들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민족을 향도하는 교회요 한국 교회 갱신에 힘쓰며 민족 75%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교회, 세계를 우리의 교구로 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원하는 교회, 2001년에 새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바쳐 영광 돌리며 후손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우리 서울 교회가 하나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뒤돌아 보니

기도에는 외상이 없으신 주님

이옥녀 권사 (제 1권사회장)

지난 주일 교회설립 제 7주년 기념감사에 배를 드리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흐르는 눈물을 억누를 수 없었다. 7년 전을 뒤돌아 보면 교회에 참석 하나 제대로 사지 못하고 집에 있던 방석들을 가지고 왔던 우리들이 아니었던가?

7년동안 너나 할것 없이 서울교회 성도들의 건축을 위해 뿌린 눈물의 기도와 헌신은 주님의 보좌에 곱게 쌓여 있을 것이다. 기도는 절대 외상이 없으시다더니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감당케 하시고 이제는 교회를 지을 수 있게된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과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감사할 뿐이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신 주님께서 IMF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제 난국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 예배당을 짓도록 허락하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부족한 내가 제 1권사회장을 맡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묻게 된다.

제 1권사회는 70세 이상된 권사들의 모임이다. 마음으로 무엇인들 못할까마는 이제 조용히 모여 앉아 기도의 불을 지피는 중심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울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이 많은 권사들이 기도만큼 사랑의 온 사도 땀방 받아서 서울교회야 말로 그리스도

의 사랑이 넘쳐 훈훈한 교회라는 말들을 들을 수 있도록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바란다.

주님께 이끌리어 앞에서 이끄시는 이종운 목사님의 뒤를 기도로 묵묵히 밀어드리는 권사회가 되도록 열심히 봉사하련다.

순례자 컬럼

성탄절은 오는데

해마다 12월이 되면 연말 연시의 송년회와 더불어 성탄절에 대한 행사가 비단 교회에서 뿐 아니라 사회 도처에서 진행된다. 성탄 절기가 오면 크리스마스 카드가 캐를 소리와 함께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힌다. 무엇이 크리스마스를 이토록 상업적이고 환락의 열기로 끌고 갔을까.

본래 성탄 정신은 이런 것들은 아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말 구유에 인간으로 찾아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마다 바른 성탄 정신을 체득해야 할 것이다.

성탄 정신은 화생하는 정신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도성인신의 도리는 화생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성탄 정신은 사랑의 정신이다.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사랑의 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게 하신 것이다.

성탄 정신은 섬기는 정신이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다.

대강절(待降節)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우리는 바른 성탄 정신을 갖고 성탄 계절을 지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여전도회 총회 결과

여전도회는 지회별로 1999년도에 수고할 일꾼을 선출하고 있다.

지난 주 발표되지 않은 지회 중 2개 지회의 일꾼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도회	연령	지회	회장	부회장
한나	만 60세 이상	1	심재을	최영순
에스터	만 50-59세	3	정정숙	손재경

김장합니다

교회 식당에서는 12월 2일(수), 3일(목) 양일간 김장을 한다. 많은 봉사의 손길을 기다린다.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11월 새가족 환영회

* 11월의 새가족 *

이주는 이순옥 이경자 이두형 김영미
배호성 김운경 안경모 남정숙 김용자
천정애 김연정 송성근 선정자 문영현
김일식 이선옥 오문택 최유신 이금순
김지현 이상목 김순필 이병열 김영환
신혜선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동정

◇이종운 목사는 26일(목)에 출국하여 괌(Guam)에 있는 아가페장로교회 집회를 인도하고 12월 3일(목)에 귀국한다.

◇오늘 점심식사는 홍한규 · 모양순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90:12)

*찬양의 시간이 매주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1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새로 선출된 일꾼들을 위해
2. 교회의 연말연시 행사를 위해
3. 대강절 기간동안 성탄정신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